

정원 줄어...교사임용 '바늘구멍'도 막히겠네

광주·전남 내년 초·중등 공립 566명 선발...중등 66명이나 감소 학령인구 감소 따른 흐름...입시 수험생들 꼼꼼히 따져 진학해야

광주·전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초·중등 공립 교원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예고한 가운데 갈수록 좁아지는 임용 문에 수험생들은 물론 교대와 사범대에 진학하려는 고교생들까지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이 최근 예고한 선발예정인원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각각 319명과 247명 등 총 566명의 공립 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2020학년도 모집공고 기준)에 비해 광주는 초등은 1명 늘고 중등은 3명 이 줄었다. 전남은 초등은 68명이 늘어난 반면 중등은 63명이나 줄었다. 초등은 다소 늘기도 하지만 중등은 매년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

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예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미래교육체제 대비책 마련과 장기적인 교원 수급 안정화 계획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면서도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의 문을 뚫기란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좁아지는 임용 문에 "교대와 사범대가 '백수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 두 자리 수 경쟁률은 기본이고 주요 과목의 경우 수 십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2대 1 미만이었던 초등 임용시험마저도 지역에 따라 8대 1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초등 교원 선발예정인원으로 11명을 사

전예고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초·중 교원으로 10명(장애 1명)만 선발했는데, 9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 74명이 몰려 8.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지역별 일반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96대 1이었다.

올해 역시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세종 등 신규 채용 규모가 두 자리 수에 머무르는 지역의 경쟁률은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당장 임용시험을 치르는 교대생이나 사범대생들 뿐만 아니라 장차 교대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최근 수정했는데, 교원 채용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많게는 900명이 줄어 향후 3년 안에 초등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학생 수가 급감하

는데 근본적인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 입학정원과 임용 인원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초등마저 임용 문이 더욱 좁아져 임용 재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임용시험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기준 4200여명 수준이지만 임용 인원은 3800명대여서 교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교사로 임용되는 안정적 인 흐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 수는 앞으로 점점 더 줄 것이기 때문에 교대와 사범대의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라며 "교대, 사범대의 특성상 교직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타 분야로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용 규모와 같은 취업전망까지 꼼꼼히 따져 진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 '인증유지'

광주대학교가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유지를 획득했다. 인증자격은 2022년 12월까지 유지된다.

광주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인증대학 인증 자격모니터링에서 모든 평가지표를 충족해 '인증유지'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주기에 이어 지난 2017년 2주기 평가 인증을 획득한 광주대는 6개 필수평가 준거를 포함한 대학이념 및 경영과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 30개 평가준거의 모든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6개 필수평가 준거 항목은 ▲전임교원

확보를 ▲교사 확보를 ▲정원 내 신입생 충원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을 ▲교육비 환원율·장학금 비율이다.

2주기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은 대학이 계속해서 인증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본 평가 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개선요구사항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 결정하게 된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환경을 재점검하고, 우리 대학이 우수한 교육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거듭 공인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여름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공간도 확보·운영한다.

폭염 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폭염 주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작업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쉼터 166곳(실내 58곳·야외 108곳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살수차 운영, 폭염저감시설 관리를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북구는 여름 기간 동안 기상정보 예찰, 신속한 재난-예보 전파,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 등 재난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북구가 오는 9월까지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달 초에 내린 폭우로 광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중인 만큼 재난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태풍·호우 등을 대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소하천 등 총 43곳의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취약도로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침수차량 발생을 대비한 주차

5·18조사위 구례 수해 주민에 생필품 등 구호물품 전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구례 지역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례 양정마을 주민과 육군 31사단 장병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2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수해 복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구호물품 지원으로 대신했다.

구호물품은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음수수와 간식 등으로 구성됐다.

송선태 위원장은 "대민지원에 힘쓰는 31사단 구례대대 장병과 수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100일 남은 고3 교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0여일 앞두고 24일 오후,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상무고 "20m 앞에서 3년간 아파트 공사...학습권 침해"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건립 반발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광주 상무고가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무고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시행사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분노하며, 광주시는 형식적 공청회를 통한 우물을 중단하고 학교구성

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행사는 반복된 주장만 할 뿐 본질적인 문제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서 지하를 파고 수십층 건물 공사가 3년간 이뤄진다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지"라며 "교실에서 아파트 간격을

50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1층 위치보다 6m 아래에 급식실·체육관·교실이 있어서 방진막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며, 소음과 진동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거리가 불과 20m에 불과한 115동 건물의 위치를 설계변경을 통해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나 시행사 측은 "법적

기준에 부합되고, 피해 예상 건물이 급식실과 도서관이어서 교실수업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2015년 대학캠퍼스가 광산구 서봉동(여동대)으로 이전하면서 빈터로 남아 있고, 10~34층 짜리 아파트 16개 동 9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학대 위기 아동 가정방문 점검

빅데이터 추출 58명 대상

점검 중 면담 및 소재확인 거부 등 학대 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인 경찰수사 의뢰로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전담기관과 학대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이울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이 발견될 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지원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빅데이터 시스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점점 중 면담 및 소재확인 거부 등 학대 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인 경찰수사 의뢰로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전담기관과 학대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이울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이 발견될 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지원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빅데이터 시스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